

토 론

사회 : 고맙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좀 자세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용어 오해 때문에 오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언어학, 개별 언어학 그리고 어학(또는 언어 교육)의 세 가지 개념의 혼동 때문에 저희들 그룹에서 사전 토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어학하면 순수 언어학, 언어학파에서 가르치는 언어학일 것이고 개별 언어학이라고 하면 영문과에서 가르치는 영어학, 독문과에서 가르치는 독어학 등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학이라고 하면 저는 언어 교육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학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개별언어 기능,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보통은 어학 교육 또는 언어 교육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개념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영문과에서 영작문 과목을 어학 선생이 가르치느냐 문학 선생이 가르치느냐의 문제에서 이전 마땅히 영어학 전공을 하는 선생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언어학 교육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 개별 언어학 교육에 관한 것만도 아니며, 소위 어학 교육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전체를 두리뭉실하게 놓고 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이 모임을 계획할 때는 주로 개별 언어학에 큰 focus가 가는 걸로 이야기했었지만, 반드시 거기에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 이미 주제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언어학과 다른 학문 분야간의 상관 관계라든지 혹은 상호 보완 관계라든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어학 교육 또는 개별 언어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이기용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 이정민 선생님이 언어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제가 조금 부각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학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그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학문 체계에는 항상 중심이 되는 학문들이 하나 내지 둘이 있어서 일종의 계층을 이루고 학문이 진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희랍시대에는 철학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학문들이, 예를 들어 물리를 연구한다든가 수학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따위들이, 이루어졌고 중세에서는 신학이라는 영역이 들어와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적인 신학 철학, 그러니까 위에 상전이 있고 그 밑에 철학이라는 시녀가 있어서 두 축을 이루어서, 학문이 발달되었고 더 나아가서 물리학 등을 위시로 한 자연과학이 나오므로 인해서 자연 과학은 철학이나 신학과 같은 사변적인 학문과 이분되어서 양립되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난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이라는 기간을 돌이켜 보면, 잠정적으로 사회학이라든가 인류학 등 인간 중심의 학문들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달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변에는, 제가 보기에는, 언어학이 모든 일원적 근거를 제시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표면상에 나타난 것들은 사회학 혹은 인류학들이었지만 그 저변에 나타나는 구조의 개념, 모델의 개념 혹은 경험과 사변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언어학이 학문 체계를 이루는 데 밑바닥에서 공헌을 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언어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 과학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으로서, 이정민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언어학이 안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학문과 달라서 언어학은 two-edged sword와 같이, 양날이 달린 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데는 야누스적인 측면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는 ambivalence가 있다는 것을 거론한 사람도 있는데, 가령 언어학을 본다면 우선 언어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 자체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적인 측면, 즉 metalanguage로서 다른 학문을 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언어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인문 과학적인 사변론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경험 과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험 과학과 인문 과학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있어서도, 오늘 오준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나타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언어학의 목적이 formalism, 즉 어떠한 formal structure라든가 formal model을 제시하는 것이냐 혹은 informal한 어떤 phenomenon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용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용적인 측면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학자다운, 실용의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마치 수도자적인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언어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언어학이 밥을 먹여 살려 줄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학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이론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시켜 보면, 정치하고도 아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정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언어 순화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언어학에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중공하고 미국이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까워졌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선교사를 보냈지 않았을가 생각돼요. 그런데, 아직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언어학자들을 처음에 보냈던 이유는 언어학자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겠고 말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또 학자인 측면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 양면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학의 기초 과학으로서의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 :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초 과학으로서 안 걸리는 데가 없는 중요한 과목으로서 여기 저기 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멀리 대전에서 올라오신 송병학 교수께서 같은 방향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송병학 : 이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부연할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만 이제까지 언어 연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면만 다루었고 극단적인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실생활, 곧 우리 사회와 모든 문화가 다 언어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던 것 같은데, 이런 폐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따라서, 그러한 견해 때문에 한국에서 언어학과 각 인접 학문과의 관계가 꼭 소원한 걸로 여겨졌고 협력도 잘 안된 걸로 느껴지며 서로 도움도 못 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한국의 학문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언어학 자체로 인접 학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인접 학문으로부터 언어학 연구의 도움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협력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과거와 같은, 지나친 폐단에 빠지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대개 언어학을 가르칠 때 갈등을 느끼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느 학파의 이론을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학파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가령, 변형문법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문법도 좀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이론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옮길 때 일어나는 용어의 번역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정국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정국 : 아까 이기용 선생님이나 송병학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언어학의 의의라든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은 의의를 가진 언어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반적으로 크게 환영을 받는다고든가 주류가 되고 있다든가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원인이 될 만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언어학의 범위 문제를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언어학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언어학을 해온 사람들은 보통 언어학이라고 하면 그것을 변형문법적이고 동일시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언어학을 안한다, 너는 변형문법을 하니까 변형문법이나 해라”라는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가 배운 background가 되는, 예를 들면, formal한 approach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학을 한 분들은 그 쪽만 강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전문문법을 한 분들은 전통문법대로 각자가 다르게 강조하고 하여서 자기의 것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남의 것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뿌리박게 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용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언어학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책에서, 예를 들어, ‘distinctive feature’라는 것이 ‘변별적 자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데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또 ‘markedness’를 이야기할 때 ‘유표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ad hoc’ 같은 말은 적당한 번역 용어가 없어서 그냥 ‘애드 학’ 또는 ‘애드 학니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언어학과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령 ‘distinctive feature’ 같으면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여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어려운 인상을 줄 것이 아니라, 일본책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별 특성’ 같은 식으로 이야기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당장 알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marked’는 ‘유표적인’라기 보

다는 ‘유별성이 있는’, ‘유별난’, 또는 ‘표나는’ 등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ad hoc’ 같은 것도, 이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시변통’이나 이와 비슷한 말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흔히 많이 쓰는 ‘alternation’이라는 말도 ‘교체’라고 하면 무언가 substitute되어서 어떤 하나가 날라가 버리고 딴 것이 들어 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morpheme’이라는 것도 늘 우리는, 이것은 변형문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형태소’라고 하니까 형태가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phoneme’에 해당하는 말로 ‘음소’라는 말이 있으니까 ‘morpheme’도 ‘어소’라든가 이와 비슷한 말을 만들어 내어서 용어 같은 것에 특히 신경을 기울인다면 사람들과 언어학과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용어의 문제는 정말 잘 생각해서 좋은 용어를 만들면 상당히 거리를 좁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comment를 좀 해 주시죠.

송병학: 용어 말씀을 하셨는데, 옮겨서 오히려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안 옮긴 것보다도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번역이 그렇게 원활하고 꼭 일치되는 의미를 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걸 봐서 선볼리,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국: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는데, ‘feature’라는 말과 ‘자질’이라는 말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영어에서 ‘feature’라고 하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것을 영어학에서 차용해 쓰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그대로 언어학에서 쓰면 언어학 특유의 전문적인

의미가 또 부가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사회: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의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물론 그것도 암시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읍니다만, 아까 이경진 선생님 말씀대로 언어학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없는 이론은 불가능하고 이론 없는 자료의 집성은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생인 중의 하나가, 전통적이거나 변형 혹은 어떤 이론이거나를 막론하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이론에 너무 치중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있다면,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의 유파라든가, approach라든가, 이론적 background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아 듣느냐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기운이 싹트고 팽배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송병환: 지금 말씀이 자료 본위로 학문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첩경이 아니겠느냐는 말씀과 이론은 자료가 있는 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이론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정국: 예.

송병환: 그러면 어떻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서 자료를 분석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 선생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comment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약간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이론과 자료의 문제인데, 그걸 개별 언어학 교육 그리고 교과서 구성과 연관지어시면서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계신 이상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익: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언어학 이론과 국어학 자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래 이론이 근래에 전반적으로 들어와 퍼져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접목, 즉 이론과 자료가 알맞은 화합을 하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일부 과거의 문헌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어를 다룰 때에는 국어에 맞는 이론을 특별하게 개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론상으로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과격한 생각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어학의 훌륭한 전통도 물론 면면하게 이어져 왔읍니다. 별도로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만, 다른 외국어 학과보다 특히 언어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구미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론을 앞설만한 이론이 우리의 작은 가족들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소화해서 우리 국어에 적용하고 또 근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외인 부대에서 국어학에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것을 저희 국어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변형 문법에서는 직관이 없는 언어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셈이니까 그 자료는 우리 모국어를 씬으로써 공통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어문학을 하시는 분이나 국어 학자들이나 이런 공통의 자료를 가지고 외래 이론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 나갈까 하는 데 대해 몇 가지 같이 반성해 보고, 제 입장에서 특히 외국어학과 일반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국어 자료가 일반 이론의 보편성에 대부분 맞겠지만 근래의 일반 이론 자체에서도 국어와 일본어 같은 것은 non-configurational language로서 특수한 취급을 하자는 제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도 외래 이론의 무작정적인 추종보다는 국어에 좀 더 맞는 형태로 항상 조절해 나가는 데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아까 심재기 선생님께서 좋은 예를 주셨는데, 가령 '이발하다'와 같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역형으로 '이발시켜서 이발하다'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발하다'는 자기가 이발하

는 것도 되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 것도 되는 특수한 표현인 점 등, 하여튼 국어의 특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어 자료를 다룰 때 이론 일변도로 틀에 맞추려고 그 쪽에 자꾸 쫓아가는 것만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학 일반 이론이 어떻게 국어 자료에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치려고 들여다 보면, 교과 과정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언어학의 연구 역사가 짧고 국어 자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아직 filtering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이론 적용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우리 국어학계에서 기다려서 쓸 수 있는 지식의 축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어학 하는 학생들을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의 난점은, 외국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론서를 직접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 아까 논의된 용어문제도 있고 해서, 변형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원서도 많이 써 보았읍니다만 양적으로 많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의 일본의 경우만 해도 젊은 학생들이 언어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본내에 외국 이론을 번역해 주고 정보를 적절히 농축해 놓은 개괄서들을 시시때때로 내주는 학자층이 있고 그런 것을 series로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단 시일내에 가장 최근의 언어 이론까지도 소화를 하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아마 저희 국어학 쪽에서 외국어 문학, 특히 언어학을 동학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날림 번역책이 아니고 학생들이 용어 하나라도 정말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학 분야만에서의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 길어져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국어학의 경우에 교과서 혹은 교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우리말로 된 좋은 언어학 개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언어학의 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언어학이 좀 더 많은 followers를 갖기 위해서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쉽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까운 장래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병수 선생님께서…….

이상익: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학 개론을 몇 학기 가르치면서 이 책 저 책을 써 보았읍니다만, 소수의 분들이 전체를 긴축성 있게 쓰신 개론책도 있고, 여러 분들이 약간 산만하긴 하지만, 각 전공 분야를 통괄해서 쓰신 개론책도 있는데, 입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여 가지가 되는 외국의 언어학 책들 중에서 번역서가 나온 것이 Langacker의 *Language and Its Structure*, Grinder & Elgin의 것과 Elgin의 *What Is Linguistics* 등이 있습니다. Elgin의 것은 제가 한번 교실에서 번역책이 없는 줄 알고 썼더니 학생들이 번역을 빨리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도 끝나가니까 꽤 실력이 붙었나 보다 그랬더니 밑에 놓여 있는 번역책을 읽은 것이어서 아주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Smith & Wilson의 *Modern Linguistics*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냥 cheating하는 도구로만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번역 못 할 구질에 그걸 들여다 보는 정도입니다. 아마 대체로 그밖에도 몇 종류 더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경희대학교에 계신 박병수 선생님이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은데, 기왕에 말씀을 해주시는 김에 앞의 내용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언어학 교육 혹은 개별 언어학 교육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sensitive한 문제입니다만, 문학과 어학과의 관계와 선생님께서 평소엔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Chomsky 언어학의 문제라든지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상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된 좋은 교재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영어를 조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번역서가 오히려 영어 원서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책일수록 더 그래서, 가령 *Syntactic Structures*라든지 *Aspects*와 같은 것의 우리말 번역은, 영어로 된 원서도 어렵긴 하지만, 영어를 몰라서 그 쪽을 참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국 선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어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번역서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손으로 직접 쓴 좋은 교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학 개론 같은 것은 물론이고 *syntax*, *phonology*, 이런 것도 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것으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영어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영어학 개론, 영문법 또는 영어 음성학과 같은 과목에서인데, 그 교재의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은, 아까 이점민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없는 이론은 불가능하니까 학생들에게 이론쪽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예컨대 *syntax*에서는 예문들이 아주 많이 다루어져 있는 교재일수록 좋고 *phonology*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든 자료들이 풍부할수록 영문과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yntax* 중에서는 Akmajian과 Heny가 쓴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방향의 책이 자료가 풍부하고 *exercise*도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 언어학 내지는 언어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한 1/5 내지 1/4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문교부에서 영어영문학회에 의뢰를 해서 '대학 교육 과정 개선에 관한 보고서'라는 영문학과 교과 과정 시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중인 교과 과정이 참고되었고 그것의 개선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시안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공 과목 30개를 놓았는데,

그 중에서 영어학 과목이 여섯 개입니다. 정확하게 1/5인데, 그 이외의 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설 과목이 6개, 영시가 6개, 회석이 4개, 비평이 1개, 문학사가 3개, 그리고 영어 연습이라고 해서 작문, 회화 같은 것이 3개, 다음에 영문학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학은 소설, 시, 회석과 같은 분야와 양적으로 같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영문학과 영어학 교육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어학 교육이 분명히 열세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독문학과나 불문학과와의 경우에 훨씬 더 그렇고, 국문학과와의 경우는 아마 영문과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비율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율을 올린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 제시된 과목을 보면, 영어학 개론, 영문법 I·II, 음성학, 영어 발달사, 그리고 영어학 특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더 많이 첨가한다면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과목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는 영어학 교육이 더 어려워져서 손님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와 관련시켜서도 이것이 갈등인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이고 흥미있는 교재를 가져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학 교육이 열세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강화시키다 보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한다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2학년부턴 시작하니까,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이면 전공 과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4:1 혹은 5:1의 열세에 놓여 있지만, 강화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선 1:1은 안 되더라도 2:3 정도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nsitive*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기용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기용 : 오늘 주제가 언어학 교육이 되어서, 언어학 개론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는 언어학이라는 위치가, 아까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언어학이라고 해서 간판 걸고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길지 마는, 활성화되었다고 할까, 활발하게 두각을 나타낸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학 개론을 잘 써야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전념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루빨리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풍토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이룩되려면,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 좁은 분야, 아무 쓸모 없이 보이는 그 좁은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차후를 내세워서, 학생들의 입장을 위한 선생의 입장으로 가서 요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제 2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1차적인 과제는 빨리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남보다 앞설 수 있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을 더 낮추어서 학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이론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 2차적인 혹은 제 3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2차적인 과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문화된 연구가 먼 훗날에는 필요하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가령, 아까 textbook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도 보십시오. 변형문법에 대해서 60년대 초와 중반에 대학원에서 꽤 많이 가르쳐 졌지만 textbook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64년에 Bach가 쓴 것과 그것의 개정판이 있었을 뿐이며, 결국 70년, 저희가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야 변형문법에 관한, 그것도 학부 교과서가 아닌 대학원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transformational grammar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이, Bach의 것도 그렇고 Baker의 것도 그렇고, 대학원 1학년들을 위한 교재지 학부 3학년을 위한 교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10년 혹은

15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이론도 아닌 그 이론을 textbook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문제이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요사이 교과서에 관심이 있어서 의미론 책을 하나 써야지 하고 있지만, textbook 쓰는 기술하고는 문 쓰는 기술은 솔직히 말해서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언어학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textbook에 관한 것도 나오고 교과 과정에 관한 것도 나왔지, 만일 이것이 주제가 아니었다라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몇 마디 했습니다.

사회 : 다른 분들 또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정민 선생님, 주제 발표를 하셨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민 :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자기 연구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지금 이기용 선생님께서는 연구쪽을 강조하시고 교육쪽을 2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 성취를 위해서는 연구 쪽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문 발전이라는 것은 자기만 독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능가하는 이론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의무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2차적이라고 이기용 선생님께서 규정하시는 교육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하고의 갈등 문제가 항상 있는데, 한국에서의 어문학과의 팽창이 사회의 요구로 봐서 과연 문학 연구자를 양산하자는 것이 목적이겠는가 하는 데 한 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 등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야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언어 그 자체도 관심사가 되고,

문학을 잘 이해하는 데도 언어의 연구가 중요하고 도움이 되며, 언어 자체의 연구가 또한 정신구조의 어떠한 탐구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문학과와 개별 언어학이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고 강화되어서 다음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웃음).

사회: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100%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백인 선생님과 오준규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먼저 성백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만주어, 몽고어 쪽으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우랄-알타이어에 대한 연구가 많으시니까 그 쪽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끔 가다가 문제가 되는 공시 언어학과 통시 언어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언어학 하면 synchronic한 쪽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diachronic한 면이 먼저 생겨서 발달해왔다는 이유와 다른 이유도 있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데 가끔 경시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균형있는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논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인: 오늘 언어학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을 보고 언어학이 꽤 보편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언어학을 전공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 있으면서 말이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다 중요하고, 특히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즉 그런 인접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적인 교양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처음부터 조금 좁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이론과 실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언어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언어를 왜 연구하고 있느냐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나오는 것이며 구체적인 언어를 다루지 않는 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도 없고 그

이론이 나올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언어학과 학생들에게 항상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 없이 언어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구실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정말로 언어학은 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전통적인 언어학이니, 구조주의 언어학이니, 또는 생성이론이니 해서 서로를 떼어서 이야기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 꽤 필요해서 그 필요한 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을 연구해 왔고 또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내에서 언어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생성이론들을 구조주의의 아주 어려운, 사실을 헤치는 언어의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발판적 연구가 없었더라면 언어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세부 규칙들과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 언어학, 통시 언어학의 문제보다도 개별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언어에 대한 사실을 먼저 충분히 깨달아서, 물론 그 언어를 연구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이론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아울러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건 통시건 간에 언어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inherent하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서 오랫동안 언어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신 오준규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돌려겠습니다. 오선생님은 연구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교육으로도 미국인 학생들 가운데, 인기라고 하면 속된 말인데, 가장 인기가 있는, Kansas 대학의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한 15년만에 귀국하셨는데, 오셔서 그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직접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

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판해 주셔도 좋고, 잘 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준규: 제 인기 문제는 아마 학생들에게 학점을 쉽게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웃음). 방금, 특히 이기용 선생님과 이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연구하고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나온지 아직 얼마 안 돼서 두 선생님들 중 어느 분이 더 영향력이 많으신지 모르니까 누구의 비위를 맞추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웃음). 상당히 balance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에 치우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을 때 그것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좋은 공부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강의하는 경우까지도, 여기서는 아직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즉 여러 가지 가르치는 면이나 교수법을 생각하다 보면 연구할 기회가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에서 과목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balance가 아니냐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는 언어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구 문제는 빼놓고, 교육 문제에 좀 논급하고 싶은 데 결국 목적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언어학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과 내용, 교과 방법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들과의 communication을 할 수 없이는 그 학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transformational theory가 하나의 theory로서 doomed되어 있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그것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언어학자들에게 사용된 이론이므로, 꼭 Chomsky가 지금 말하는 trace theory를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transformational theory는 처음부터 가르쳐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번의 Akmajian & Heny 같은 교재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 대신에 Perlmutter하고 Soams가 쓴

*Syntactic Argumentation*을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reasoning이 무엇인가 하면 Akmajian and Heny를 보면, 가르친지 하도 오래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영문법적인 사실과 예들은 많이 나와 있으나 이론 전개가 대단히 비논리적이어서 가르치다 보면 loose ends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런 결론을 그런 data에서 어떻게 뽑아 냈는지 학생들이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다가 전혀 설명이 안 되어서, 영락없이 학생들에게서 질문이 올 때는 이 책이 잘못되었다든가 이 책이 좀 미비하다는 정도 밖에 대답 못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erlmutter & Soames 같은 건 data 자체도 그렇고 논리 전개가 굉장히 정연해서 교과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내용 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 자체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어학을 배울 때 제일 처음 갖는 것이 편견인 것 같습니다. 박남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synchronic한 것만이 linguistics이라는 편견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언어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언어를 알 필요가 없으며 자기의 native language만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면 언어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병적으로 배우는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data를 많이 알수록 그만큼 이론 흡수가 쉬울 것이고 그럼으로써 좀 더 차원 높은 이론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학생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습성을 들여서 언어학과에 들어간 이래에 죽을 때까지 25개 정도의 언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웃음). 그래야 언어학으로서 깊이 있는 이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의 내용을 살피는 데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논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졸업한 후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저 개인의 야심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rtificial intelligence 면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가 굉장히 새로운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는 수학적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학때부터 개발시켜 놓으면 아주 좋은 언어학 이론 뿐만 아니라 applied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정민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대학에서나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서 똑같은 것을 거의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령 기초수학 혹은 computer science 와 같은 것을 학부에서 가르쳐서 background를 쌓도록 할 수 있게 교과 과정을 재분석할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구와 교육의 싸움은 어느 쪽이 이겼는지 아직 모르겠군요? (웃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지 모르죠. 대학에 몸 담고 있는 한 양쪽에 반반씩 끌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갈등의 문제로 남는 것이겠죠?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 문제도 이야기 하셨는데, 학문을 조금 더 relevant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럼으로써 학문도 크고 학문의 social relevance도 커져서 사회에서의 학문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 양쪽에 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시켜서 hyphenated linguistics 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어학이라고 하면 대개는 소위 순수 언어학쪽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교육도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hyphenated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병수 선생님, 아까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단하셨으니까…….

박병수: 글썄요, 제가 hyphenated linguistics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해서 좋은 의견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학생들에게 흥미가 있을 듯한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언어학 같은 것은 상당히 흥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순화와 같은 것도 심리언어학

적으로 말과 사고의 관계 같은 것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학과 관련을 시켜서, 시 분석이나 소설 분석을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hyphenated linguistics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순수 언어학만 강의하는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 방법의 논문들을 모아 놓은 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것을 뽑아서 영어학 세미나라는 강의가 있어서 작년에 한 번 다루어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한테 언어학 강의를 한 것 중에서 제일 재미있어 한 것 같습니다. syntax나 phonology 강의를 할 때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 오는 반응을 보이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송병학: 말씀 도중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언어학을 이용한 문학 분석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더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D.C. Freeman이 편집한 *Linguistics and Literary Style*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시, 소설을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 좀 되었고 문학 전공한 사람들과 어학 전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가 가까와지려면 서로 가까와져야 하는데, 문학을 하는 쪽은 대체로 가만히 있으면서 언어학 하는 사람들만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웃음).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은 문학에 일 반적인 관심도 있고 책을 읽기도 하니깐 조금은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야기도 되지만 문학 전공한 분들은 도대체 어학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책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걱정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서 문학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을 학생들에게 강의했을 때 문학에 좀 가까와졌다는 생각을 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은 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면, 나머지 시간은 여기 오신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어학회 또는 우리나라 언어학계의 원로이신 이기문 교수님께

서 와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나 국어학 교육 내지는 언어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문 : 글썄요, 다 좋으신 말씀 같은데, 교육과 연구의 문제에서, 우선 연구를 해야 가르칠 수 있겠죠. 연구가 안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국문과에서도 국어학이 학생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어렵네요. 소의당한다고 할까요? 영문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과에서는 최근에 언어학쪽이 많이 끼어 들어서 더 같든 같은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국어학이 먼저 높이고 해방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인정은 완전히 받고 있어서 괜찮은데, 영어영문학과에서의 언어학 교육이, 제 생각으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어학 교육이 아니고 일반언어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계신 김충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충배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학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써 저는 교과 내용의 중복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언어학 개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음운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끝나서 그 정도로 끝내고 영어학 개론에서도 제일 먼저 이걸 배우고 음성학에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학원에 가면 학부 때 교재를 또 씁니다.

그 다음에, 1학기에 미국에서 새로 오신 분이 Montague Grammar을 했는데, 2학기에는 Baker로 내려갑니다(웃음). 이렇게 담당 교수의 취향에 따라서 아무 책이나 선택하고 학생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뒤를 지켜서 대담하게 뛰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course가 분명해서 담당 교수의 취향에 따라서 교재가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학이 열세에 놓여 있고 문학에 치우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중복을 좀 피하고 줄이면 학부 영문과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 대 여섯 과목이면 어학 과목은 충분히 cover가 되니까 교육을 충실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어학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언어를 구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에도 연관을 시켜주는 교육을 같이 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 과목을 좀 줄이더라도 언어 자체의 구사력을 외국어 어문학과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훌륭한 어학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네, 오늘 아주 좋은 발언 고맙습니다. 제 사건으로는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 배워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웃음). 그건 그렇고 오늘 남선생님들이 전부 독점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floor에 계신 덕성여대 최은경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문학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어학 교육에도, 물론 전공이라서, 많이 아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덕성여대 case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텐데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은경 : 갑자기 지적을 당했는데, 저도 대체로 김충배 선생님과 동감입니다. 우선, 어학을 가르치거나 문학을 가르치거나 delivery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 중에는 언어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언어 교육도 언어 정책면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학과 문학의 상호 관계에서 볼 때, 이들은 상당히 관련이 있으며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학 교육자는 문학을 많이 읽어야 할 것이며 문학하는 사람들도 어학 서적을 읽어야 잘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는, 아까 김충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 과정의 중복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course를 가르치기 이전에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것을 check하고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학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혼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전통문법, 변형문법 혹은 tagmemics 등으로 교수가 속한 학과에만 치우친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리를 빛내주신 언어학회 전 부회장님과 현 부회장님이 계신데, 전 부회장님이셨던 이병진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건 : 별로 할 말은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영문과에서는 너무 언어학에만 치우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어학 선생이 한국어에 대한 논문을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영문학 선생이 국문학 논문을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영어학 교수가 국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에서 국어 data 중심의 독특한 연구는 아직은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구조 언어학을 하든지 변형생성문법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한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미국 학자나 소련 학자가 쓴 것보다 나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제 서정수 선생님의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서정수 : 아까 김충배 선생님이 과목의 중복이 많다고 하셨는데 개론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었으면 계속 반복하는 동안 언어학을 깨우칠 수 있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중복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조화있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을 반복도 해 가면서 차차 정도를 높여가는 방향의 교수 방법 및 교재가 개발되어 curriculum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학계에서는 새로운 언어학 이론의 소개로 국어학 연구에 응용되고 그로 인해 국어학이 진전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언어학의 발달이 상당히 빨라서 국어학계에서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론의 개발을 국어학계에 소개하여 서로 상보적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제순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선생님은 우리나라 응용 언어학과 어학 교육계의 원로이시니까 그쪽 입장을 대변해서 한 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제순 : 제가 사범대 소속이고 응용 언어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대 인문대의 경우 응용 언어학 및 심리, 사회언어학 분야의 강의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을 가르쳐야 권위가 서고 인기가 있어서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교육 이론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순수 언어학쪽에서도 응용 쪽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도 개발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범대에서만 필요하다는 사고를 버리고 순수 언어학과 응용쪽을 잘 조화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선생님께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학부에서의 목표는 communicative competence의 배양에 두면 좋겠습니다. speech level에서의 여러 규칙을 습득해야 의사전달이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언어학 이론이 필요할 수 있게 발달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사회 :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경을 끼고도 눈이 나빠서 모르고 있었는데, 남기심 선생님이 와 계신데, 선생님께서 finale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심 :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언어학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우리말 교재가 우선 나와서 아주 기본 개념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이론이 들어가서 잘 익어서 한글화된 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예, 고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로 여기서 오늘의 토론회를 끝맺겠습니다. 마땅히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채희락)